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849호 1판 (음력 8월 25일) 2018년 10월 4일 목요일

국도1호선 따라 남북 평화·교류 꽃피운다

〈목포~신의주〉

한반도 평화 분위기 타고 광주시·전남도 대북 교류 사업 활발

광주,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제안
평양 예술단 답방 공연 '가을이 왔다' 광주 개최도 요청
전남, 평양발효콩 2공장 건립 재개·함북과 땅끝협력도

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의 간격이 그 어느때보다 좁아진 가운데 광주시가 북한 특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성사와 함께 내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북한예술단이 광주를 찾고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 응원단, 문화공연단 등이 참가할 경우 대회 흥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는 등 광주·전남 지자체들의 '북한 특수'를 누리기 위한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과 정영재 우리민족돕기운동본부 등 2명을 평양에서 개최되는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파견하는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면담해 이들 사안을 직접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이번 방북을 통해 '가을이 왔다' 공연의 광주 개최를 북측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시장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참가 제안'과 '북한예술단 광주 초청'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했다. 광주시는 북한 선수단 참가규모를 선수단 25명, 응원단 등 300여명으로 추정하고 참가가 확정되면 별도의 전담 지원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 면담에서 조 장관은 "평양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선수단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문제를 북측 관계자와 논의했다"며 "이번 10·4 선언 기념행사로 평양에 방문할 때에도 북측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달 중 개최할 평양예술단의 답방 공연을 지방에서도 한두 차례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북측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북측과 문화예술교류를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땅끝협력(전남-함북), 국도1호선 교류(목포-신의주) 등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사업을 재개했다. '땅끝협력'은 함북지역 산모·영유아에게 전남의 미역과 이유식 재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후 농림어업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나진·선봉지구 등 두만강권역 개발투자사업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또 전남이 한반도 최남단이라는 이점을 살려 국도1호선 양 끝점인 목포-신의주 간 남북평화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도 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독일 통일의 예에서 보듯이 자치단체 간 교류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방법으로, 통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0년 5·24조치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던 평양 발효콩빵 제2공장 건립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2008년 평양에 1일 10만개 생산 규모의 발효콩빵 공장 건설을 지원했다. 북한 측의 추가 공장 설립을 요청받아 1일 10만개 추가 생산 규모의 발효콩빵 제2공장 건립 계약을 맺었지만 중단됐다.

전남도는 민선 7기 들어 남북교류 전담 부서를 신설, 백신 지원사업 등 23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했다. 또 현재 34억원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21년까지 5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 교류와 산림 황폐화 복원, 희귀광물자원 분야의 교류협력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낙안읍성 초가지붕 새단장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에서 이엉엮기가 한창이다. 3일 낙안읍성 보존회 회원들과 주민들이 볏짚으로 초가지붕을 새단장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국정감사 시작

광주·전남 10~25일 진행 … 한전 등 피감기관들 본격 준비

광주시와 한국전력 등 광주·전남 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소속 17개 상임위원회별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광주·전남 주요 피감기관들도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은 10일~25일 보름 동안 진행된다. 오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가 혁신도시내 전파연구원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혁신도시 입주기관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문화체육관광위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또 11일에는 목포해양수산청과 여수해양수산청이 국회에서 농수산위 국감을 받고, 12일 전주 농업진흥청에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국회 농수산위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어 15일 과기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 보건복지위가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 환경노동위가 광주기상청을 상대로 국회에서 감사를 펼친다. 16일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18일에는 6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영산강환경청과 영산강홍수통제소(이상 환노위), 한빛원전 등 한국수력원자력(산자위), 여수광양항만공사(농수산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광위)가 국회 국감장에서 감사를 받는다.

또 19일 광주고용노동청(환노위)이 국회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경남교육청에 마련된 교육위 국감장에서, 22일 오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위로부터, 세계김치연구소가 과기위로부터 각각 국회에서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현지국감도 실시한다. 23일 광주고법과 광주지법, 오후에는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을 대상으로 감사를 펴고, 과기위는 오전 국회에서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25일 행정안전위 감사반이 광주로 내려와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같은 시각 교육위는 전남대와 전남대병원에 대한 국감에 나설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폼페이오 7일 방북 김정은 만난다

서울서 문대통령과 성과 공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오는 7일 방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로 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 조치가 결합하는 '빅딜'이 이뤄지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헤더 나워트 미 미국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6일부터 8일까지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다"며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면담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6~7일 일본, 7일 북한, 7~8일 서울, 8일 중국을 방문한다. 서울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4차 방북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지난 7월 6~7일 3차 방북 이후 약 석 달만이다. 당초 지난 8월 말 4차 방북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핵화 진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무산시킨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지난 달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동력이 되살아났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북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과 뉴욕 방문으로 (만든) 불씨를 되살린 것"이라며 "그 자체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점이 빨라지면서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도 생각보다 앞당겨 지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 박문수 "꼽자이 라오스" ▶18면
양현종·이명기 부상
- KIA 가을야구 빨간불 켜졌다 ▶20면